

시편 묵상 41
(11/10/2023, 금)

찬양: 540(219)(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시편 29:1-11

말씀에 대한 이해: 시편 29 편은 다윗의 시로서 '감사 예배시'로 분류된다. 다윗은 본 시편에서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다윗은 자연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분의 완전한 주권을 나타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모든 자연 만물은 그 나름대로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소리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소리"를 느끼게 한다. 시 29:3 -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일곱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자연을 통해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던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소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1)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찬양한 다윗. 시 29:1 -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첫째, 천사들이라는 견해, 둘째, 세상의 권력을 가진 군주들이라는 견해, 세째, 이스라엘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가운데 천사들이라는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진정한 왕이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거룩성을 말한 다윗. 시 29:2 -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거룩한 장식으로' 혹은 '거룩한 아름다움으로'이다. 이것은 외적인 옷이나 장식의 의미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서의 영적인 그리고 삶의 거룩성과 정결성을 뜻하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이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보기를 원하신다. 시 51:17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하는 성도는 거룩성을 지키고 거룩성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 우리는 거룩하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거룩한 영성과 삶과 거룩한 섬김과 봉사를 행하며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

3) "여호와의 소리"의 역사를 노래한 다윗. 다윗은 3 절이하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시 29:4-5 - 4.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힘 있음이여 ... 위엄차도다"라는 표현은 3 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소리인 우렛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의 산지에서 자라는 소나무과의 상록수로서 1 년 내내 푸른 잎을 자랑하며, 높이가 25-40m, 가지의 넓이는 10m 까지 자라는 거목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병충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마디가 없어서 고대로부터 건축 재료로 귀하게 쓰였고 화려함과 장엄함으로 잘 알려진 나무로서 1 년 내내 푸른 잎을 자랑하는 상록수이다. 성경에서 백향목은 안정과 번영 혹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교만한 자를 나타내기도 한다. 사 2:12-17 -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3.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14.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15.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16.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17.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다윗은 여호와와 소리가 바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고 말했다. 다윗은 이 땅의 모든 교만하고 완악한 권력자들이 여호와와 소리에 의해 백향목이 꺾여 부수지듯이 꺾여 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다윗은 자연의 현상을 깊이 관찰하며 묵상하면서 “여호와와 소리”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고, 힘이 있고, 백향목을 꺾으시고, 화염도 가르고, 광야를 진동하며, 심지어 암사슴의 새끼도 낳게 한다고 말씀한다. 본문 9 절에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라며 표현하지만, 다른 번역에는 암사슴의 새끼를 낳게 하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와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호와와 소리를 들려 주신다. 여호와와 소리가 우렛소리(3 절)로도 나타나며, 물이 흐르는 소리(3 절)로도 나타나며 광야가 진동하는 소리(8 절)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 중에, 기도과 찬양 중에, 자연을 통하여, 심지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와 소리를 들려 주신다. 성도는 여호와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다.

다윗은 여호와와 소리가 힘이 있음을 드러내면서 여호와와 소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29:8 - 여호와와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어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소성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소리들을 뚫고 들리는 여호와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주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리에 힘을 얻고, 주님의 소리를 따라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도 11 절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시 29:11 -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우리 평생을 여호와와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김기대(캄보디아), 김데이비드(오만), 김봉춘(몽골), 김요셉(튀르키예)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3. 지난 10 월 9 일 미얀마 북동쪽 라이자외곽에 위치한 몽라이케트(Mong Lai Khet) 난민 캠프에서 폭탄 두 발이 터져 어린이 11 명을 포함한 최소 29 명이 사망하고 56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난민 캠프는 수십 년 동안 자치권을 주장해 온 카친독립기구가 통제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테러의 배후에는 미얀마 군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2021 년 쿠데타로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2,947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정권이 민간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을 그치고 군부와 민간정부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미얀마에 하루속히 정치사회적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

